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봉구 안골 마을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 왼쪽이 이성실 경사, 오른쪽은 정현자 경장. 사진=임민수 기자

GIVE5

“나누면 세상이 밝아져요”

마디 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안골경로당을 관리하는 김수인(51) 통장은 “요새같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자기 자식도 버린 노인들을 돌보는 저런 양반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다”며 “사랑이 메달라가는 세태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취지로 만든 모임인 ‘좋은 사람들’은 2000년 5월부터 시작했다. 98년부터 도봉구내 영세가정을 돌봐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1월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일상의 보시

올해 들어 평생 혼자 살면서 모은 전 재산을 동국대에 기부한 80대 할머니들의 잇달은 보시행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수십 년간 방직공장에서 혹은 포목상 등을 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여 모은 재산을 아무 미련 없이 사회에 회사한 이들 할머니들의 보시행은 삶의 가치와 보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끼없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일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손잡고 길을 건네주는 마음씨 역시 보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밝은 미소를 짓는 것도 보시요, 남의 험담을 늘어놓기보다 남을 칭찬하는 그 자체도 보시이다. 남이 말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보시이기도 마찬가지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보시고, 하심 경양도 보시다. 모임의 화합을 위해 애쓰는 것도 보시요, 부드러운 말도 보시이다.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는 것 역시 보시행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도 보시

작은 베품이라도 신심과 정성 중요

순수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

도 있지만, 무엇이 되었건 세상을 밝게 하고 삭막함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행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베품으로서의 보시행인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보시가 일반인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보시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듯, 또한 특별하게 시간이나 돈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들 눈에는 하찮고 보잘 것 없는 물건이나 행동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신심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인 것이다.

다. 경전의 한 구절을 일러 주는 것, 단 한 부의 포교 문건이라도 전해 주는 것 또한 훌륭한 보시이다. 심지어 사할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보시이다.

부처님께서도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백천생에 절보가 구축하다 자랑할 만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보시행은 세상이나 행동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신심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인 것이다.



△보시는 거창한 게 아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작은일도 보시이다. 사진은 한불자가무의탁노인부부를 방문, 요구르트를 전하는 모습.

바라밀현장 도봉경찰서 ‘좋은사람들’

“아이구, 우리 아들하고 딸들 왔네. 보고 싶어 혼났어. 어디 있다 언제 온 거야?”

“그 동안 좀 바빴거든요. 죄송해요.”

첫눈이 내린 18일 서울 도봉구 안골 경로당. 경찰관 4명이 문을 열고



‘좋은사람들’ 회장 고광선 경사 지원 못 미치는 틈새가정 관심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조금이라도 편히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누어도 세상은 좀더 살만

이성실 경사가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정묘생(64) 할머니를 위로 한다. “힘내세요. 아버님은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아니야, 편찮아.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는 걸” 정 할머니는 몇 번 오다 그만 두려니 생각했던 이 경사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따뜻한 말 한

고 경사의 자비행이 알려지면서 도봉경찰서 법무회 소속 불자 경찰들이 주축이 되어 동료 경찰과 힘을 모았다. 신경하 경사는 “처음에는 종교가 달라 봉사활동을 같이 안 하려고 했지만, 함께 남을 돕는 마음을 내는 게 바른 종교인인 생각을 하면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한다. 현

자의 영향이 컸다. 6·25 동란의 와중에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던 모습의 어머니. 어커가 준 무언의 가르침을 통해 고경사는 자연스럽게 불심을 갖게 됐고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고 경사가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봉사대상은 틈새 가정이다. 틈새 가

정은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에서 빠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다. 안골 노인들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해요.” 예년보다 일찍 추워진 요즘, 연탄값이 없어 방방으로 지내는 노인들 생각에 고 경사는 늘 좌불안석이다.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렇듯이 노래 부르는 가수도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 팬이 없는 가수는 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도 존재가치를 잃는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마음의 흥을 풀고 삶의 여유를 찾는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더러는 달고 싶어하기도 한다. 팬들의 심리는 더욱 그렇다. 팬들도 어떤 노래를 좋아하다 보면 점차 그 노래를 부른 가수까지 좋아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그의 모습이나 행동까지 흉내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인기가수들 중에는 이런 팬들을 가진 가수들이 있다. 지금은 작고한 남인수씨나 배호씨 같은 가수가 그 예다. 이들의 인기는 아직도 남아있어, 그의 노래를 흥

다.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가수 N씨를 흥내내면서 밤무대를 통해 살아가는 두 모창가수의 삶을 방영한 적이 있다.

그런데 흥미를 끄는 것은 이들의

대해 항상 긍정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다. 열심히 인기가수 N씨의 흥내를 내 밤무대 손님들을 기쁘게 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생활을 하고 있

서기를 바랐다. 특히 그 B씨를 바라보는 아내는 더욱 안타까움이 심했다. 그림자 노릇을 해서 번 많은 돈이 아니라, 작더라도 뜻뜻한 가수가 되어 번 돈을 원한다고 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이 가치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택한 길에 순응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A씨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갈등하며 회의하고 사는 B씨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헷사리 판단대리가 어려워졌다.

마음비추기

내내의 후배, 가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70년대 대중가요를 이끌었던 가수 N씨만해도 그렇다. N씨 역시 인기만큼이나 그를 좋아하다 못해 추종하며 평생 그의 노래만 부르고 사는 모창가수가 생겨났

긍정적 삶·부정적 삶...선택은?

삶의 방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A씨의 경우는 자신이 택하고 걸어들어 ‘그림자와 같은 인생’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했다이

었다.

반면 B씨의 경우는 그림자와 같은 자신의 생활방식에 갈등하고 회의하는 부정적 삶의 태도를 취했다. B씨는 가수 N의 가짜 가수가 아닌, 가수 B로써 한번만이라도 무대에

영험도량

해원스님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해원스님

불보살의 원력으로 이승과 저승을 명확히 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죽은 영혼을 환생케 하므로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문춘복 (51 · 이동면 서리)

15년전 죽은 삼촌이 접신이 되어 간세포 90% 소멸, 현재 정상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 (2002년 6월)

정점숙 (46 · 고림동)

그의 남편은 26년 전 죽은 어머니가 접신되어 폭주를 자주하고 그런 날이면 밤새 도록햇소리를 하는 등 고통을 받던 중 이젠 정상인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2002년 8월)

“남편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저와 결혼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뿐만 아니라 폭주를 하면 밤새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밤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많이 끊어 가고 몸도 쇠약해져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해원사에서 불보살님의 원력을 받은 이후로 불면증이 없어진 것은 물론 주사까지 없어져 새사람과 사는 기분이에요.”

불보살님 가피력



“본래 간 기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늘 쉽게 피로해서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가장으로서 생활능력도 잃게 되자 정말 막막하네요. 스님을 뵈기 전에 약 1주일간을 전혀 음식 못 먹을 지경이 됐어요.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었죠. 이왕 이렇게 죽게 되는 거 한번 맡겨나 보자는 심정으로 스님을 찾았었는데... 지금요?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지요.”



“남편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저와 결혼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뿐만 아니라 폭주를 하면 밤새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밤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많이 끊어 가고 몸도 쇠약해져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해원사에서 불보살님의 원력을 받은 이후로 불면증이 없어진 것은 물론 주사까지 없어져 새사람과 사는 기분이에요.”

문의전화: 031) 336-3734, 336-3735